

모스크바大學의 現況과 特性

崔 平 吉

(延世大 行政學科)

1. 머리말

모스크바대학은 1755년 러시아의 人文科學 分野뿐만 아니라 自然科學 分野에도 모두 학문적 조예가 깊었던 漁夫의 자식인 로모노소프 總長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래는 크렘린 궁정 옆의 모스크바시 중앙에 건립되었으나, 2차 대전 이후 스탈린의 주도로 모스크바 시내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레닌 언덕(Lenin Hill)에 1949~1953년 사이에 세계 최대의 높이를 가진 單一 複合 建物로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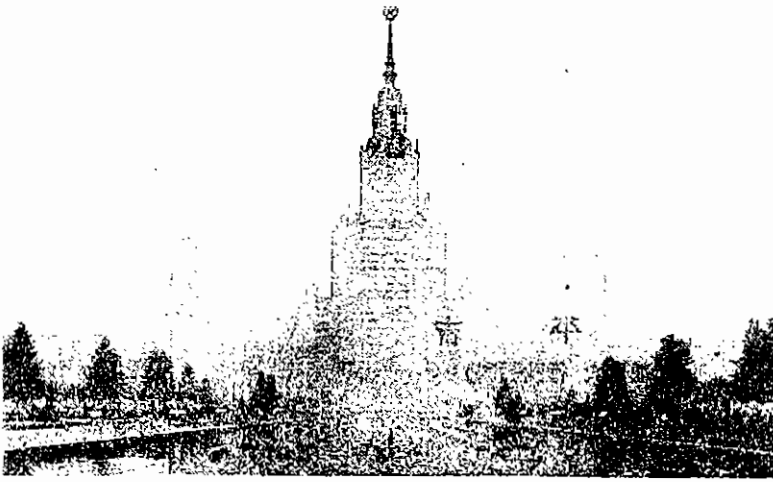
어림잡아 100만 평은 훨씬 넘어 보이는 완전 평야 지대에 자리잡은 모스크바대학은 서구의 대학과는 달리 육중한 단일 건물이어서 장엄하게 보이기는 하나,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느낌이 있어 명쾌한 기분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건물 주위에 잘 조성된 소나무 숲과 조용한 공간, 그리고 밑으로 펼쳐진 모스크바 시내를 바라다 보면 이런 음울한 기분은 상쇄된다. 교내를 음미하면서 서서히 달려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는 데 2시간은 족히 걸린다. 이 단일 건물 안에 總長室, 講義室, 교수 사택, 학생 기숙사, 그리고 모스크바대학이 자랑하는 地質博物館 등이 있다.

2. 歷史와 教育政策

일반적으로 大學은 중앙 정부 문교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과 학생 교육을 위한 基礎研究가 주류를 이루고, 科學院(Academy of Science)은 共產黨 中央委員會 직속으로 政策研究를 주로 하는데 산하에 200여개의 인문·사회·자연 과학 모두를 망라하는 연구소가 있다. 이 과학원은 제정 러시아 때부터 존속해 왔다. 따라서 모스크바대학은 학생 교육 및 포괄적 기초과학과 순수 개발 이론에 주요 역점을 두는 것 같다.

초기에 法學·醫學·哲學·自然科學의 4개 학부(faculty)로 나누어 출발하였는데, 그후 10月 革命 이후에는 모스크바대학도 문호를 개방하여 노동자 자녀를 위해 노동자 학부도 만들고 1920~'30년대에는 과학 발전, 인민 경제 복구, 농업 협동화, 문맹 퇴치, 간부·기술자·전문가 양성에 일조를 하였다.

1930년대에는 모스크바대학도 빠른 변화를 거듭하여 공학·건축학·의학·법학부는 독립된 대학으로 분리되었고, 특히 의과대학은 독립적으로 모스크바 제 1, 2, 3 의과대학으로 발전한다. 또한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는 모든 분야에서서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을 느끼고, 모든 대학이 전문인 양성과 훈련에 전념하여 의과대학



◀ 모스크바大學은 현재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하여 국가 예측으로부터 벗어나 自律的인 學問活動을 모색하는 組織이 결성되는 등 改革이 進行되고 있다.

이외의 다른 대학에서도 고등교육 인재를 대량으로 배출하였다.

현재 모스크바대학에는 자체에 물리,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 생물, 지리, 지질, 광물, 사회, 법, 역사, 철학, 경제, 신문언론, 심리, 아시아·아프리카대학 등 16개 단과대학(faculty)이 있고, 새로이 사회과학대학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각 대학에는 학과가 있고 학부의 학사학위는 없으나, 5~6년 기간의 석사학위, 그후 3년간의 박사학위, 다시 3년간의 정박사(full doctoral) 학위가 있다.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서 가르치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는 5년마다 졸업한 대학에 가서 1~5개월 동안 다시 새로운 학문이나 기왕의 연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기간을 가지며, 모스크바대학에만 5년 동안 연구하러 오는 교수가 4,000~5,000명이 된다. 모스크바대학은 주간 학생 22,000명, 야간 학생 6,000명에다 교수(연구원, 조교 포함) 8,000명이 있는데, 정교수는 1,300명, 준박사(박사학위 취득 후 정박사 전 단계) 1,500명, 석사과정을 지나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 4,500명이 있다. 남자 교수인 경우 정년이 60세이고, 여자 교수는 55세인데 그후에도 일할 수 있다면 계속 교수로 근무

할 수 있다.

3. 페레스트로이카와 國際交流

현재 모스크바대학도 그 나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하여 국가 기관 예측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학문 활동을 하는 自治委員會와 大學協會 등을 조직하여 활동중에 있다고 한다. 모스크바대학에는 현재 90개국에서 온 유학생 1,300명이 있다. 그 중에 대학원생은 700명이며 1~6개월의 단기 과정 실습생도 2,500명이나 된다. 외국어 교육상 각국어를 가르치나, 대학에서는 러시아어로 강의한다. 외국에서 온 학생과 교수에게는 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초청의 경우 항공 여비와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외국인 교환 교수에게는 월 400루블, 원로 교수에게는 월 450루블을 생활비로 주고 주택도 무료로 제공한다. 학생에게는 기숙사가 제공되고 월 150루블을 생활비로 지급하며 식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소련 학생이 대학에 들어올 때 입학 절차는 3~4개 과목에서 2과목은 필기 시험, 2과목은 구두 시험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경쟁은 약 3:1 정도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대학과 교류를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개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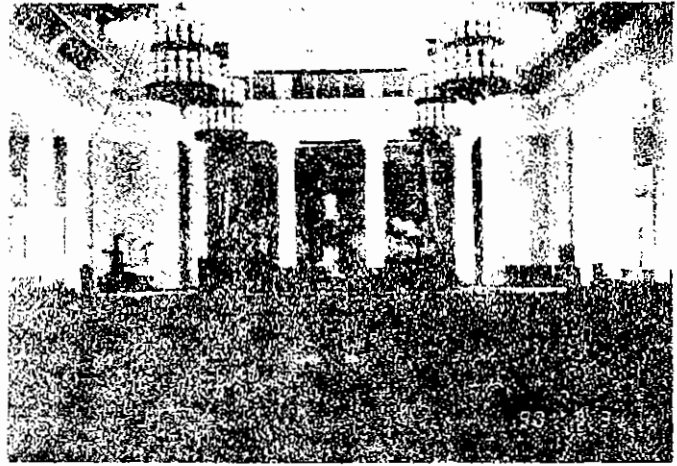
중국, 남미, 인도, 아프가니스탄, 네 팔, 베트남, 캄푸치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핀 란드, 특히 미국의 예일대학과 위스 콘신 대학과의 학생·교수 교환 계획 이 연구중에 있다. 또한 중국의 북경 대학과 상해대학과는 교과서도 공동 제작하고 최근에는 영재 교육을 위해 물리·수학·화학·생물 분야의 특별 고등학교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8월에 모스크바대학과 延世大 學 術 交 換 協 定 에 따라 모스크바대학에서는 韓 國 學 을 전공하는 교수 1명과 한국학 전공 학부 학생 4명, 연세대에서는 대학원생 2명을 상호 교환하여 연구하게 된다.

모스크바대학에는 명망 있는 교수가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모스크바대학 總長 로그노프 博士는 蘇 聯 科 學 院 최고 명예인 원사로서 蘇 聯 科 學 院 副 院 長이며 레이저 빔 분야의 개척자이고 코르바초프의 과학교육 조인자로서 집권 전 에도 그와 만나 개혁에 관한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한다. 모스크바대학 물리학부의 레이저 빔 프 로그램은 그의 책임하에 개발된 것이다.

4. 맺음말

모스크바대학 내에는 현재 北韓에서 보낸 학



▲ 모스크바大學 대강당

생과 교수가 약 20명 정도 있다고 한다. 金日成 의 동생 김영주와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 황장 업이 이 대학 출신으로 북한에 原子科學研究所 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레닌그라드공대 출신인 북한의 金日成大學 副總長 노성찬(63세) 과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國家計劃委員會 委 員長이었던 정준택도 원자과학연구소 설립 관계 로 모스크바대학을 방문한 바 있다고 한다. 그 리하여 한국에서 교수와 학생을 보내면 남·북 한 연구원과 학생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진행 될 수 있을 것같고, 모스크바대학 총장단은 이 런 종류의 자연스러운 남·북한의 학문적 차원 에서의 교류와 접촉에 호의적 역할을 기꺼이 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